



`26. 6. 2(화) 15:00, 국제회의실
한양대학교 교육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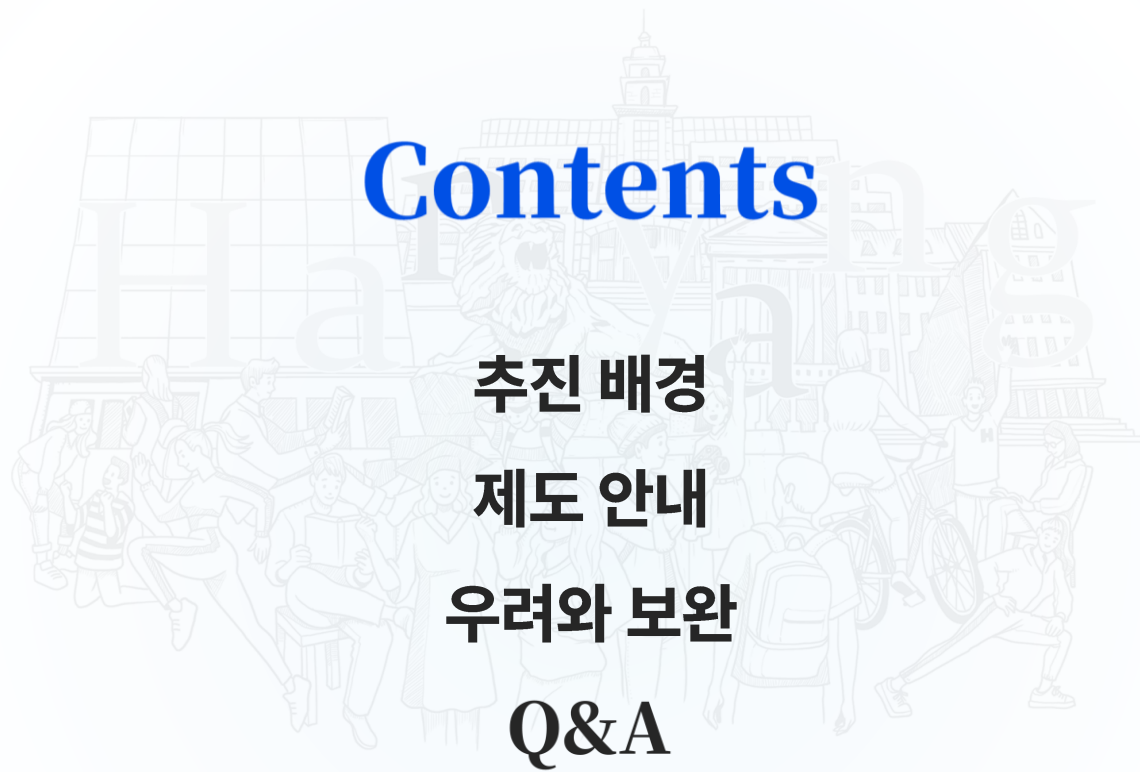
Contents

추진 배경

제도 안내

우려와 보완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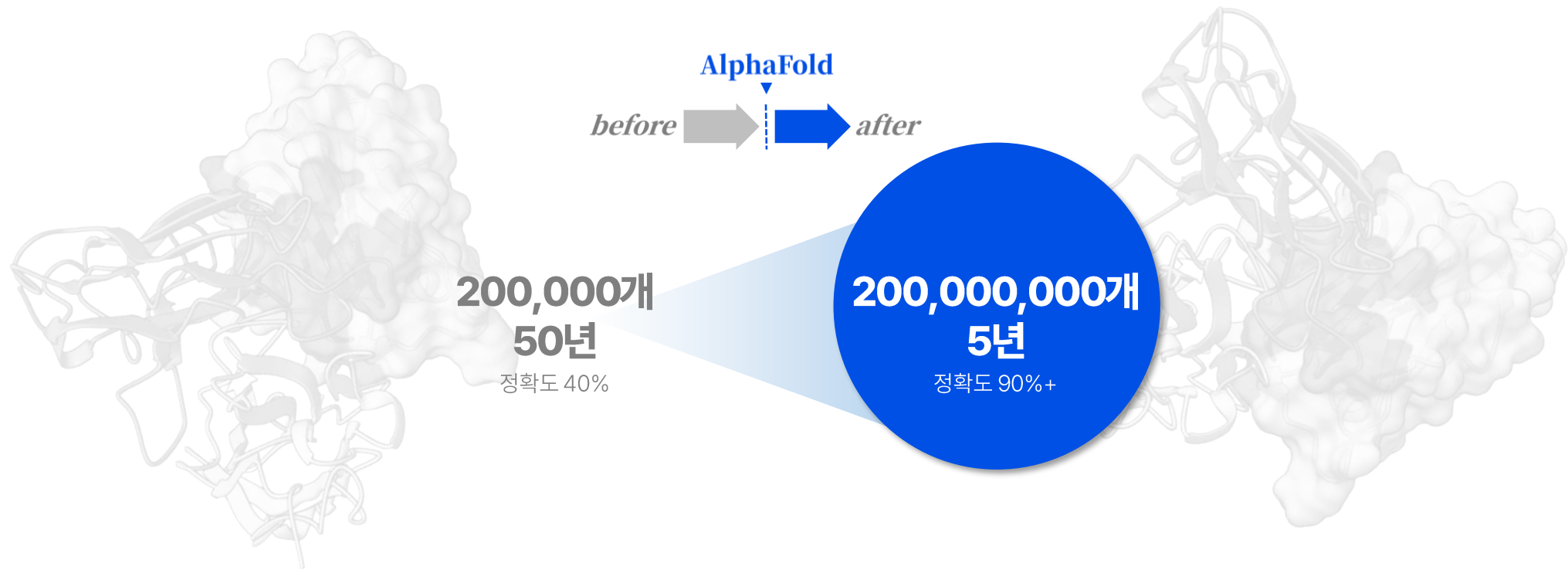




추진 배경

지식 팽창의 속도, 교육으로 감당이 되는가

AI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 연구의 혁신



출처 : <https://www.nobelprize.org/prizes/chemistry/2024/popular-information/>

-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니킬 카마스(Nikhil Kamath)의 대화 중 -

아이들이 굳이 대학에 가야한다고 보시나요?

AI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제 예측으로는 20년 내에 노동은 선택사항이 될 거예요. 취미같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학은 너무 포괄적인 반면 전문적이진 못한 거 아닌가요?

사교의 목적으로 가고 싶다면, 갈 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기술이 미래에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니겠죠. 물론 관심 분야가 있다면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과학, 인문학, 예술, ...

대학에 갈 거라면 **다양한 과목을 폭 넓게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많이 배워두는 게 좋겠죠.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q-xFA5swhc>

대졸자의 절반은 전공 ≠ 직무

“ **학력보다 실력** 중심 정책으로 개인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5.07.05 06:16 |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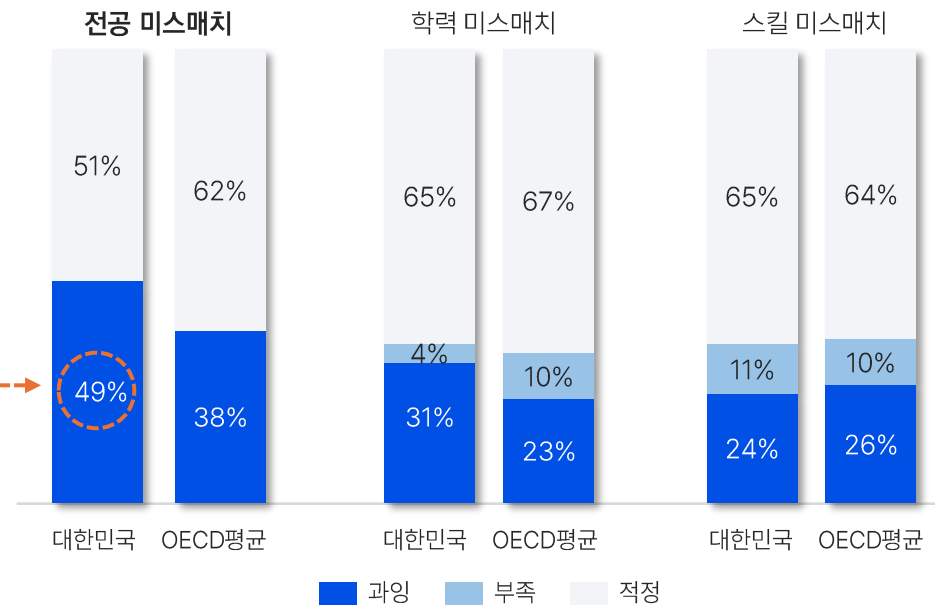
[조사·통계 브리프]_ 직능연, 한국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와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 분석

○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낮은 직무에 종사하는 학력 과잉 현상이 두드러진다. 학력 과잉 비율은 31%로 OECD 평균인 23%를 상회한다.

○ 한국 **대졸자의 약 절반이 자신이 전공한 분야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38%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 한국의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고학력자의 학력 과잉과 전공 분야 불일치가 두드러지며, 이는 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개인 차원에서는 직무 만족도 저하와 경력 발전의 제약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생산성 손실과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 노동인구 미스매치 분포 ::



출처 :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3>, OECD(2024) 부록 A의 표 A.4.12 재구성

빅테크 기업의 전공을 넘어서는 융합 인재들

Peter Thiel

Palantir, PayPal 공동창립 등
철학학사, 법학박사

Jack Clark

Anthropic 공동창립, OpenAI 정책디렉터 등
영문학사

Stewart Butterfield

Slack, Flickr 공동창립 등
철학학사, 철학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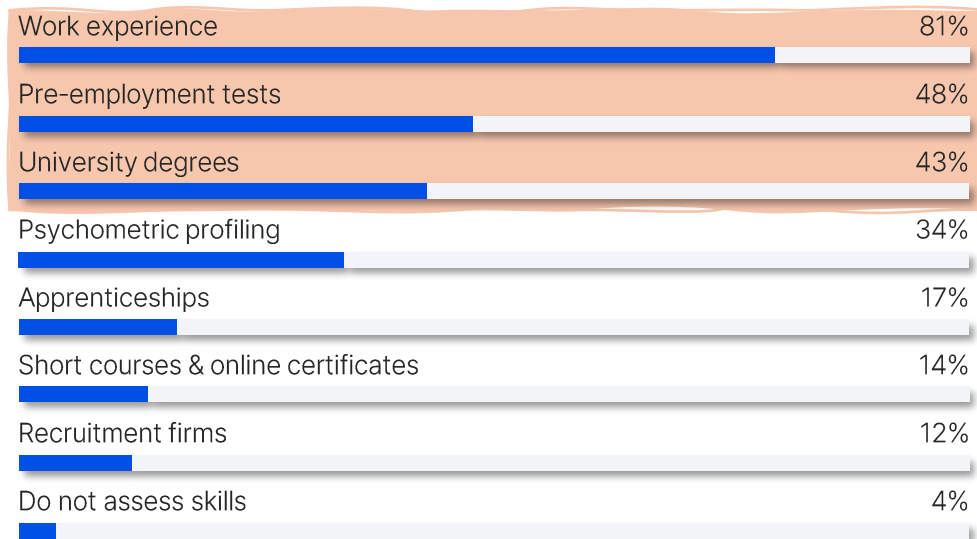
Reid Hoffman

LinkedIn CEO, Inflection AI 공동창립 등
심볼릭시스템즈학사, 철학석사

글로벌 채용 트렌드는 **경험** > 학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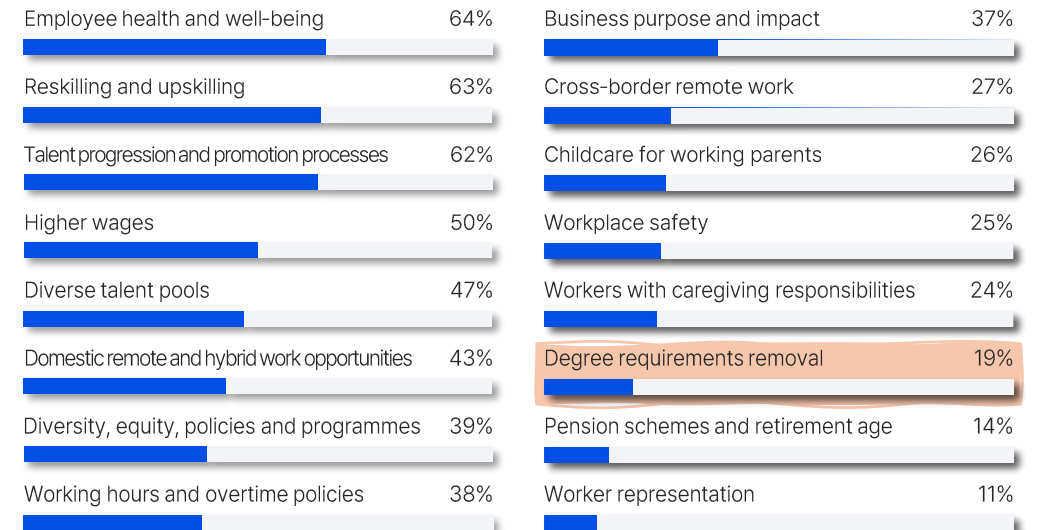
채용 시 **학위보다 경험**과 역량이 우선

FIGURE 4.12 Skill assessment mechanisms, 2025-2030
Share of employers surveyed who will prioritize the following ways to assess skills when hiring



인재확보 위해 **학위요건 폐지**하고 역량기반 채용

FIGURE 4.5 Business practices to increase talent availability, 2025-2030
Share of employers surveyed identifying the stated business practices as promising to increase talent availability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5

경계를 없애는 대학들

HARVARD University

학생은 major가 아닌 concentration(분야)를 선택
넓게 탐색하면서 한 분야는 깊게

COLLEGE CURRICULUM

Up to 12 Required Cour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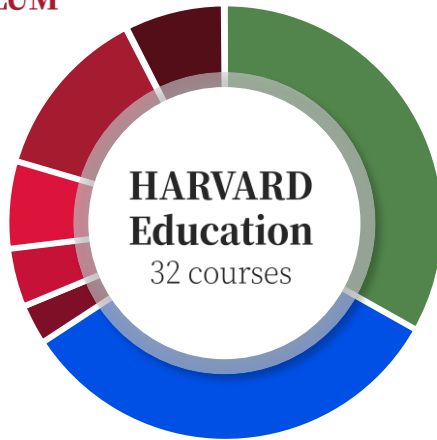
Expository Writing
1~2 Courses

General Education
4 Courses, 1 from each category

Divisional Distribution
3 Courses, 1 from each division

Languages
2 Courses or test scores

Quantitative Reasoning
1 Course



CONCENTRATION

10~14 Course Average
50 Different Concentrations

ELECTIVES

First-Year Seminars
Study Abroad
Lemann Program on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Mindich Program Language
Citation
Double Concentration
Joint Concentration
Secondary Field
Concurrent Master's Degree

Brown University

학생은 스스로의 교육을 설계하는 건축가
전공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교육

Open Curriculum

- 학생 개개인이 학업경로를 직접 설계
- 공통필수 폐지, GPA 미산정 (S/NC)

PLME

Program in Liberal Medical Education

- 학부4년 + 의대4년 통합교육 프로그램
- 학부에서 폭넓은 학문 경험 후 의대진학

BRDD

Brown-RISD Dual Degree

- 과학-예술 융합 5년제 복수학위 과정
- 브라운 다양한 전공+RISD 미술 융합

Engineering + α

- 공학기술+타학문 연구활발
- 시각적 공학, 음향 공학 등

정부의 키워드는 융합, AI

○
'19-21

지원체계·규제개선 통한 융합교육 기반 마련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단일전공
개별 단과대학 중심
개별 대학 독자운영
기초·심화 학문위주
강의 중심 학점 이수
정부 주도 정원 감축
개인 연구자 단일연구
신산업 인력 해외유치

융합전공
대학내 통합 연계
지역내 통합 연계
미래기술·직업교육
다양한 경험 학점 반영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전략적인 융복합 연구
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국립대	일반재정	특수목적
PoINT	ACE+ CK CORE PRIME WE-UP	LINC+ BK21+
국립대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BK21+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 재검토

○
'22-24

세부 과제를 통한 융합교육 정책 추진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2022	2023	2024
7,530억 (136교)	8,057억 (117교)	8,852억 (117교)

-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 전공의 경계를 넘는 융합교육 운영
-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 운영개편
- 입학 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
- 재학 단계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

글로벌대학 30

5년간 1,000억씩 30교

벽 허물기 학·연·산 파트너십 글로벌 수준 모델

- 대학과 산업간 벽 허물기-대학 학사 구조 전면 개편
- 대학과 연구기관 벽 허물기-대학 연구기능 혁신
- 학문간 학과간 벽 허물기-학생 중심 전공 체계 개편
- 국내외 벽 허물기-특화 산업 외국인 정주 인력 양성

○
'25-

융합교육 고도화·고급인재 양성 연계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 다전공·소단위 전공 등 유연한 학사운영
-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혁신
- 학과경계 허무는 교육 통해 AI 인재 양성

2025	2026
7,955억 (138교)	8,191억 (141교)

*자율전공학부 가산점 확대: '24, 10점 → '25, 15점

전공자율선택제 본격 시행

73개 대학 무전공 평균 25% 이상

서울대 160명 연세대 480명 고려대 196명
한양대 250명 서강대 465명 성균관 280명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 공진화시스템 구축 | 개방형 R&D 체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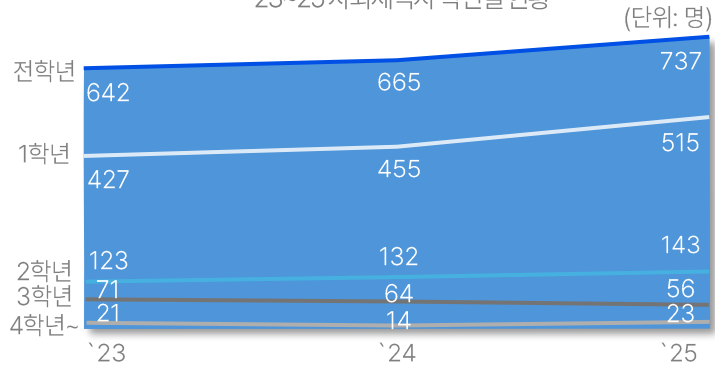
학·석·박 통합과정 허용

'27부터 박사과정 운영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 통합운영 가능

한양대의 방향도 전공선택권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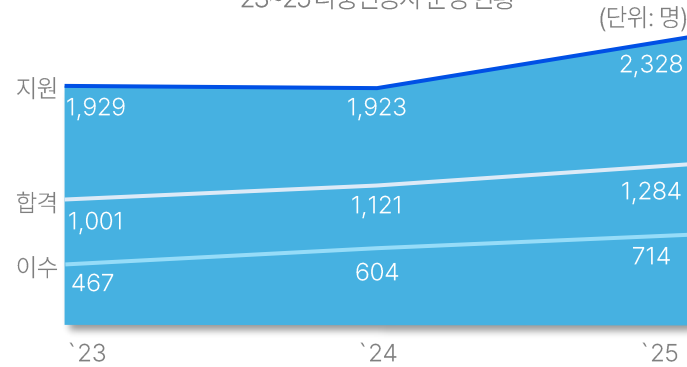
중도포기 증가

'23~'25 자퇴제적자 학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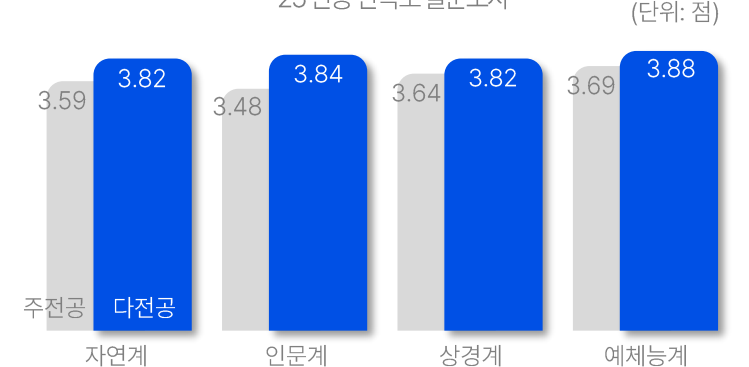
다중전공 증가

'23~'25 다중전공자 운영 현황



주전공 < 다전공 만족도 높아

'25 전공 만족도 설문조사



* 의대·간호대·통합계열 모집단위 제외, 5점 만점

HYU 경영계획
경계를 초월하는 교육
학문의경계 생각의경계 국가의경계

한양대의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들

입학

#자율전공학부 #액션러닝

자율전공 제도 및 교과목 준비

프로그램 교육과정 제도 기획

1학년 기초융합 교육과정 운영

2학년 융합전공 프로그램 개발

2학년 융합전공 프로그램 운영

재학

#다전공 독려 #학사유연화 #융합촉진

전공핵심·특화프로그램 교육과정구축

마이크로전공 완화 S/U, I등급 도입

책임시수 및 교육과정 등재 학점 조정

가산시수제도 도입 학점포기제 시행

3학년 이상 수강신청 최대 학점 축소

융합전공 개편 RBL·Dry Lab

졸업

#졸업전공선택제

자율전공 대상 적용안 설계

전체학과 대상 확산안 보완

구성원 의견수렴 및 제도화

졸업전공선택제

'24

'27



제도 안내

“ 졸업전공선택제 ”

다중전공을 이수하며 전공 적성을 탐색한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융합교육 활성화

다중전공 자격 설정 통해
최소 2개 이상 전공 장려



전공선택권 확대

졸업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학업의욕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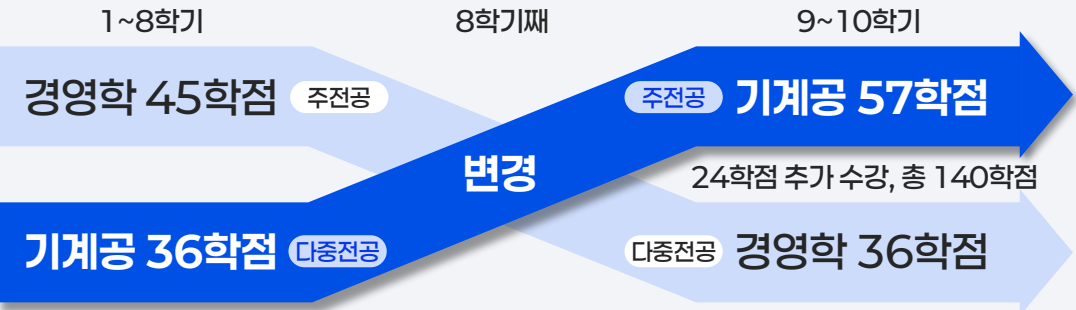
중도탈락율 개선

전공 적성 불일치로 인한
중도 탈락율의 개선 기대

기회는 열어놓지만, 쉽게 막 바꿀 수는 없도록



- 신청자격 주전공과 **다중전공 기준을 충족**한 후,
- 신청시기 **8학기 때**에 주전공 변경을 신청하고,
- 추가요건 **10학기까지 24학점을 추가** 수강하여,
- 졸업학점 변경된 주전공 학점 포함 **총 140학점**



진입허들

다중전공 이수자만 가능 :: 평점평균 3.5 이상 :: 추가학기 이수 :: 추가학점 이수 :: 2개의 전공 모두 주전공 기준의 학점 이수

신청 대상

- 허용 : 조기졸업, 학업연장재수강, 학석사연계과정
- 미허용 : 편입생
- 전출입 제한 :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신청 자격

- 평점평균 : 전체 과목 3.5 이상
- 수강과목 : 입학전공 공통교양필수는 변경 전 이수완료
- 선수강 : 미지정

제도 개선

- 교원TO, 예산 책정 시 다중전공 인원 반영 논의
- 학과 평가 등에 다중전공 및 졸업전공선택제 반영 논의

등록금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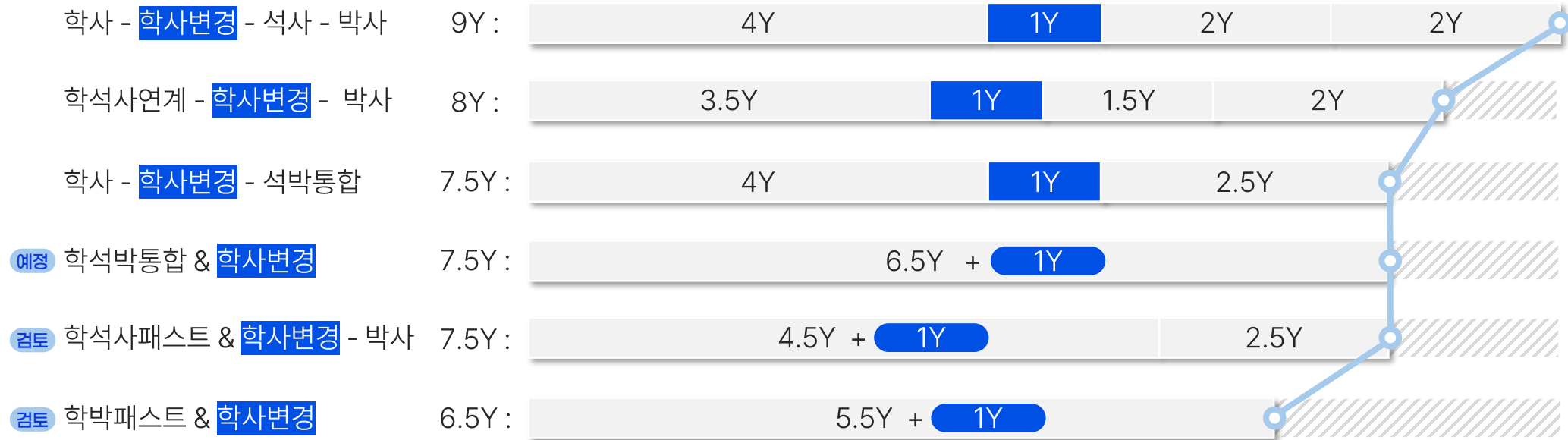
- 전공변경 이후 등록금은 변경된 주전공으로 책정
- 10학점 미만 신청자는 학업연장자의 학점당 등록금 책정

2개의 전공 모두 다중전공자의 주전공 기준학점 이수

대학/학과(부)	단일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100~300 단위	400 단위	전체	주전공 ³⁾	다중전공 ³⁾	주전공 ³⁾	부전공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제))	90	18	108	108 (90, 18) ¹⁾	108 (90, 18) ⁴⁾	108 (90, 18) ¹⁾	51 (33) ²⁾	108 (90, 18) ¹⁾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생명공학과, 유기나노공학과, 기계공학부, 에너지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71	12	83	57 (51, 6) ¹⁾	36 (21, 6) ⁴⁾	63 (57, 6) ¹⁾	21 (12) ²⁾	36 (30, 6) ¹⁾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전기공학전공,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70	12	82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정보시스템학과, 화학공학과)	69	12	81					

대학/학과(부)	단일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100~300 단위	400 단위	전체	주전공 ³⁾	다중전공 ³⁾	주전공 ³⁾	부전공	
의과대학(의예과)	52	-	52			-		
의과대학(의학과)	140	16	156					
인문과학대학	48	12	60	45 (39, 6) ¹⁾	36 (21, 6) ⁴⁾	45 (39, 6) ¹⁾	21 (12) ²⁾	36 (30, 6) ¹⁾
소규모학과 ⁵⁾	48	12	60	48 (42, 6) ¹⁾	36 (21, 6) ⁴⁾	48 (42, 6) ¹⁾	21 (12) ²⁾	36 (30, 6) ¹⁾
사회과학대학	48	12	60	45 (39, 6) ¹⁾	36 (21, 6) ⁴⁾	45 (39, 6) ¹⁾	21 (12) ²⁾	36 (30, 6) ¹⁾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54	12	66	54 (48, 6) ¹⁾	36 (21, 6) ⁴⁾	54 (48, 6) ¹⁾	21 (12) ²⁾	36 (30, 6) ¹⁾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수학과)	55	12	67	54 (48, 6) ¹⁾	36 (21, 6) ⁴⁾	54 (48, 6) ¹⁾	21 (12) ²⁾	36 (30, 6) ¹⁾
정책과학대학	48	12	60					
경제금융대학	48	12	60	45 (39, 6) ¹⁾	36 (21, 6) ⁴⁾	45 (39, 6) ¹⁾	21 (12) ²⁾	36 (30, 6) ¹⁾
경영대학	48	12	60					
사범대학	48	12	60	50 (44, 6) ¹⁾	36 (21, 6) ⁴⁾	50 (44, 6) ¹⁾	21 (12) ²⁾	36 (30, 6) ¹⁾
생활과학대학	48	12	60	45 (39, 6) ¹⁾	36 (21, 6) ⁴⁾	45 (39, 6) ¹⁾	21 (12) ²⁾	36 (30, 6) ¹⁾
국제대학	48	12	60					
음악대학	54	12	66	51 (45, 6) ¹⁾	36 (21, 6) ⁴⁾	51 (45, 6) ¹⁾	21 (12) ²⁾	36 (30, 6) ¹⁾
예술·체육대학	54	12	66					
간호학과	77	21	98			-		
간호학과(야)	29	18	47					
한양인터칼리지	48	12	78	78 (48, 12) ¹⁾	36 (21, 6) ⁴⁾	78 (48, 12) ¹⁾	36 (21, 6) ⁴⁾	36 (30, 6) ¹⁾

졸업전공선택제를 활용한 학부-대학원 성장경로



졸업전공선택제의 차별성은 전공 **탐색 후 변경**

	졸업전공선택제	전과
전공변경	가능	가능
전공탐색	36학점 필수	-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2~4학년
포기여부	포기 후 복귀	-



우려와 보완

Q. 졸업전공선택제를 굳이 해야하나요?

1

수험생 관점

학교의 경쟁력 제고 : 전공선택권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대학으로서 브랜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학과선택 부담 완화 : 입학 후 전공탐색 과정을 통해 모집단위 선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재학생 관점

전공만족도 상승 : 고등학교 때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전공을 실제 수업에서 경험한 후 결정하므로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취업대비 역량강화 : 원하는 직무 및 커리어에 맞는 전공으로 졸업하여 직무 일치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졸업생 관점

채용 시장 경쟁력 : 단일 전공이 아닌, 융합형 인재로 다양한 직무 및 기업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직무 경쟁력 향상 : 현장에서 접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Q. 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에서까지 진로탐색이 필요한가요?

1

고교 진로교육의 구조적 한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직업·직군 방향 탐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문의 실제 내용을 경험하기 전에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2

단계별로 심화되는 탐색이 필요

고교(분야 탐색) → 무전공 입학(기초학문 탐색) → 다중전공 이수(전공 탐색) → 졸업전공 선택(경험 기반 최종 결정)의
각 단계는 중복이 아닌, 더 깊은 탐색으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입니다.

3

대학은 '진짜' 전공 결정이 필요한 환경

실제 교수·연구자와의 만남, 전공 심화 수업, 현장 실습 등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의미의 '내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대학 수준의 전공 탐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학벌 세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요?

1

‘세탁’의 의미가 ‘쉽게 바꾸는’ 의미라면,

두 전공의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쪽에 충실하지 않으면 변경 자체가 불가하며, 오히려 더 높은 이수 부담을 요구하는 교내 복수학위 개념입니다.

2

‘세탁’이 ‘낮은 학과에서 높은 학과로 이동’ 의미라면,

다중전공(주전공) 의무이수 필요 + 신청자격 및 재학연한 등 설정 완료
GPA 3.5+ 신청 자격과 10학기 재학 연한 설정으로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합니다.

3

이 제도는 '세탁'이 아닌 '복수 이수'입니다

두 전공 모두를 이수한 학생이 졸업 시 더 적합한 전공으로 학위를 받는 구조입니다.
두 분야 모두에 충실히 이수해야 가능한, 쉽지 않은 구조이므로 이를 '세탁'이라 부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Q. 인기 학과 쓸림은 어떻게 막나요?

1

기존 다중전공 수요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

졸업전공선택제는 다중전공 이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행 다중전공 수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공시뮬레이터 모니터링 + 선제 대응

재학 중 학생들의 전공 이수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강의 수요를 사전 예측하고, 학과별 인원 쓸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전공 강의 분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쓸림과 비례한 예산·교원 TO 탄력적 운영

수요가 집중될 경우 해당 학과에 교원 TO 및 예산을 탄력 배정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중입니다. Post Doc 채용 등을 통해 강의 공급을 유연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비인기 학과의 수업은 폐지되나요?

1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졸업전공선택제는 기존 주전공과 다중전공의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현재의 주전공 및 다중전공 수요가 유지되거나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2

중장기 수요 감소 우려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감소 등 중장기 적인 수요감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단일 강좌에 대한 폐강기준 완화 등의 지원책을 검토중입니다.

3

비인기학과의 다변화 활로 지원

수요가 적은 학과 일지라도 융합교육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AX화 및 융합전공 활성화 등을 통해 전공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공은 하나뿐인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을 넓혀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HANYANG
UNIVERSITY